

# 계육산업 발전방향\_ 1편

## 계육의 가격결정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현재 침체돼 있는 계육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앞으로 3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 용 호 대리 | (주)하림

### ○ 글 쓰는 순서

- 1\_ 계육의 가격결정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 2\_ 계육의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연구보고
- 3\_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Action Plan

#### 낙후된 가격결정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생계 가격은 높는데 도계육 가격은 낮고 소비자 가격은 높은 '이상한' 구조

국내 계육산업은 타 축산분야에 비해 계열화 사업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1960~1980년대에 등장한 여러 계열화 기업은 시행도중에도산 또는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하림 등 신진 통합주체가 부상하면서 계열화 사업은 크게 발전했다.

(주)하림은 1987년에 완전 수직통합계열화 사업을 전개, 대규모의 육계 사육농장을 비롯해 종계·부화·도계·가공·유통·외식산업에 이르기까지 닭고기의 생산·가공·유통의 전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경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해 육계산업의 발전과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계의 85%가 수직 계열 체계에 의해 도계돼 공급된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육산업의 가격결정구조는 전 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닭고기 시장은 타 축종과는 달리 도매시장이 없고, 전일 생계가격을 기준으로 한 산지 유통인의 실거래가로 시세가 결정되어 계육협회, 양계협회, 정보문화지, 농협 등에 의해 제시된다. 소량의 산지 유통량으로 인해 전체 생계 시세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어 가격안정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계육 시세로의 전환이 국내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계육시장의 가격결정구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 업체인 타이슨(Tyson)사의 경우 우리의 도계장에 해당하는 콤플렉스에서 수요와 공급 등 시장상황과 품질상태를 반영해 당일 출고가격을 공장장이 매일 아침에 결정한다. 생계시세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분육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미국 계육시장도 군소업체가 많았던 1960년 이전에는 우리와 같이 생계를 기준으로 시세가 결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서 계열화, 대형화

로 발전하게 되고, 1980년대에 부분육 등 가공 제품의 발전을 바탕으로 1990년 이후에 시장이 아닌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계속 가격의 등락폭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발전했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의 결정구조도 좋은 참고가 된다. 돼지고기 시장에는 닭고기 시장과 달리 법정 도매시장과 공판장, 유사 도매시장이라는 중개기구가 있다. 도매시장은 수급 조절 기능과 가격형성 기능, 집하·분배·유통금융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공개 경매제도에 의해 균형가격 형성에 의한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소매시장 또는 산지 시장가격의 결정기준을 마련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닭고기의 가격결정구조는 다음과 같이 낙후되어 있다.

※ 가격조건 = {[(①생계시세+②60원)/③수율]+④제비용}×⑤중량


- ① 생계시세 : 산지 유통인의 전일 바닥시세를 기준으로 결정(계열주체 결정능력 없음)
- ② 60원 : 생계의 운송비로 농장의 거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 ③ 수율 : 생계 중량 1kg 1수를 도계했을 경우 도계 후 신선육의 중량
- ④ 제비용 : 도계비용+노무비+재료비+판관비+기타 제비용(생산원가)

우선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은 낙후된 가격

결정구조이다. 현재와 같은 가격구조로 2006년 9월 이후 계열주체의 경영실적이 악화돼 사육비 지급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계열주체의 부실화는 결국 농가와 대리점의 피해로 확대된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시세가 높으면 계열주체가 높은 마진을 취하는 반면, 대리점과 2차점의 마진이 축소되고, 시세가 낮을 경우 계열주체의 손실이 불가피한 반면 대리점과 2차점의 마진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불안정한 가격구조는 사행 심리를 조장해 투기적 사업진행을 유도하기도 한다. 농가 및 대리점과 계열주체의 안정성 확보로 계육산업 전반의 성장발전을 위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개선책이 절실하다.

대표적인 축산물인 소와 돼지는 도매시장의 형성으로 그 유통구조가 투명하고 가격도 소비자의 구매력에 비례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도축된 제품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물론 닭고기의 경우 개체수가 너무 많아 도매시장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도매시장과 유사한 형태 또는 현재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즉 생계가격은 높는데 도계육 가격은 낮고(도계육에 생산비 및 판매관리비용 적용 불가능), 소비자 가격은 높은(대리점에서 도계육 가격에 상관없이 고정된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에게 판매) 이상한 형태의 가격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부터 탈피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본고는 '함께해요 하림' 소식지 1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